

雪峯 姜栢年の 表를 통해 본 조선시대 月課 창작의 일단면*

이미진**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조선시대 月課의 변천
 3. 姜栢年の 월과 작품 현황
 4. 강백년의 월과 表의 특징
 5. 나가는 말
-

[국문초록]

月課란 홍문관 및 예문관 관료나 문장이 뛰어난 신진 관료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시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려시대 성종대부터 그 기원이 시작된다. 이후 조선 태종대부터 영조대까지 시험 대상과 방법이 바뀌었지만, 당하관 이하 신진 관료 중 문장이 뛰어난 이를 선발하여 승진 및 권학하려는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월과는 인재를 발탁하고 교육하려는 두 가지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월과는 조선시대 문신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시험이자 교육 제도였음에도 科試 및 課試에 비해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월과의 변천을 살펴보고, 강백년이 월과로 제출한 表 5편을 대상으로 17세기 중반 월과 창작의 일 단면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집에 과문을 실는 경우가 드물었고, 신더라도 그것이 ‘月課’라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월과 작품의 특징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732)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강백년의 『雪峯遺稿』에서는 월과 작품을 시기별, 문체별로 분류하고 장원의 여부까지 기재하여 당대 월과의 시행 여부와 작품 경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월과로 제출한 작품을 시기별로 자세히 기재하였다는 것은, 강백년이 월과에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며, 월과로 제출한 72편 중에서 36편이 장원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강백년의 작품이 당대 월과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백년이 월과로 제출한 표 5편은 모두 의작으로 지어졌고, 평측이나 장단구의 구성, 발어사의 사용 등은 일반 科表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피꼬리가 신하로서 왕에게 사언하면서 이백의 시를 평하고, 본문의 내용과 연관된 이미지와 전고를 사용하여 글의 목적에 도달하려고 한 점은 강백년의 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강백년은 내용과 관련된 전고를 동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을 올리는 목적에 맞게 전고를 배치함으로써 表의 본령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강백년이 월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月課, 科試, 課試, 科文, 科表, 姜栢年, 金衣公子

1. 들어가는 말

고려 및 조선시대 科試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에 대한 답을 완성도 있게 적는 것이 관건이었다.¹⁾ 따라서 수험생들은 일정 기간 상당한 학습량이 필요했다. 과시를 통해 관료가 되고자 하는 유생이라면, 단순히 修身을 위한 일상 공부가 아닌, 시험을 위한 대비 차원의 공부를 해야 했다. 그 폐단은 宋代 程頤(1033~1107)도 언급한 바 있다.

정이는 哲宗 때 崇政殿 說書로 있으면서 國子監 學制의 조례를 정하게 되었다. 그때 비효율적인 시험 제도를 없애고 학생들이 평소 학문을 잘 닦을 수 있도록 課를 제시했다.²⁾ 그는 試가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나라의 재정을 낭비하는 제도라고 여긴 반면, 課는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면담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勸學의 일종으로 생각했다. 애초에 試에 대한 반성과 회의에서 생겨난 課는 고려 및 조선시대 문신 관료에게 다달이 학문을 권장하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했다. 그중에서도 본고는 홍문관 및 예문관 등 館閣의 신진 관료를 대상으로 학문을 권장하고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시행했던 月課를 고찰하고자 한다.³⁾

월과는 科試와 시행 대상이 다르지만 科文體의 다양한 글을 시험 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문신 관료가 곧 科試 통과자이고, 이들은

1) 이상욱, 「조선 후기 과표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대동한문화지』 53, 대동한문화회, 2017, 171면

2) 정이, 『二程文集』 권8, <三學看詳文>. “三學制, 看詳舊制, 公私試, 試上舍, 補內舍, 蓋無虛月, 皆糊名考校, 排定高下, 煩勞費用, 不可勝言, 於學者都無所益. 學校, 禮義相先之地, 而月使之爭, 殊非教養之道. 今立法, 改試爲課, 更不考定高下, 只輪番請召學生, 當面下點抹, 教其未至.”

3) 월과는 ‘다달이 보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독서당의 월과’, ‘성균관의 월과’로 사용된 용례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반명사로서 월과가 아닌, 홍문관이나 예문관 등 문학 능력이 뛰어난 각각 문신들에게 달마다 詩·賦·表·箋·論·說 등 다양한 문체의 글을 제출하게 해서 그 우열을 따지는 시험 제도인 ‘월과’를 다루겠다.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1567) 1월 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2714책, 고종 4년(1867) 5월 3일 을묘 스물한 번째 기사 참조.

각종 과시의 시험관으로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했으며, 자식이나 제자에게 科文 작법을 교육했다. 그런 점에서 월과는 인재를 발탁하고 등용하기 위한 國試의 일종이자 科試 연구의 연장선에서 마땅히 살펴 봐야 하는 제도다. 이 작업을 통해서 조선이 원한 인재상을 밝혀낼 수 있으며 국시의 전반적인 경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조선시대 科擧 연구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고,⁴⁾ 2000년대 이후에도 인재 선발에서 문장력이 핵심 능력이었다는 인식 아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과시의 준비, 출제 경향, 과시 관련 문헌, 출제 문제의 문체적 특징 등 다양한 연구가 제출되었다.⁵⁾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로 갈수록 관학 및 사학에서 학생들을 양성하여 관리로 선발하는 課試가 많아졌는데, 2010년도 이후에 제출된 연구에서 조선시대 課試의 종류와 시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⁶⁾ 월과는 시험 및 교육 제도였지만 科試나 課試에 비해 그 연구가 적다. 아마도

-
- 4) 허홍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1981, 1~621면; 조좌호, 『한국 과거제도사 연구』, 범우사, 1996, 1~432면;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 2004, 1~374면;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1~396면.
- 5) 강석중, 「韓國 科擧의 展開 樣相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9, 1~145면;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5, 1~234면; 윤선영, 「조선 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9, 1~344면; 김광년,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 『臨軒功令』 研究」,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129~159면;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의 실제에 관한 일고찰-『東儂文』과 『儂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99~127면; 김경, 「조선후기 향촌사회 科詩 창작 一考-『科賦抄』所在 <醉翁亭記>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8, 동방한학회, 2021, 149~180면; 김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2021, 161~191면;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1~363면; 박선이, 「조선 후기 策題와 출제 경향에 관한 일고찰-肅宗~正祖 시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93, 한민족어문학회, 2021, 361~394면.
- 6) 해당 연구사는 최광만,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분석」, 『한국교육사학』 41, 한국교육사학회, 2019, 78면에 자세하다.

월과가 표절과 代作 같은 폐단이 만연했고, 제도의 시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과는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월과 시행 과정을 밝히는 것은 조선의 시험과 교육 제도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이며, 월과로 제출한 답안을 고찰하는 것은 당대 科文의 모범적 문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월과 연구는 이연진(2020)이 유일하다.⁸⁾ 이연진(2020)은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을 중심으로 월과 제도의 운영 규정과 변천사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조선의 문신 권학 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밝혀냈다.⁹⁾ 그러나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월과를 바라보고, 실제 답안으로 제출된 글의 특성이나 창작 경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주요 법전과 史書를 통해 월과 제도의 운영 방향 및 변천을 재구한 뒤에, 시기별, 계절별로 월과 작품을 문집에 실어 놓은 강백년의 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신 제술에서 특정 문체의 바람직한 형식 뿐 아니라 조선 國試의 일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시대 月課의 변천

고려 성종대에는 중앙과 지방에 관학 체계를 갖추고 교육 관련 진흥책을 본격화하려고 했다.¹⁰⁾ 문신들이 행정 업무로 인해 학업에 소홀할 수 있었기에, 성종은 월과를 시행하여 정기적으로 문신들의 글

7) 월과가 폐단이 만연했던 것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관료의 선발’보다는 ‘勸學’에 목적이 있어, 응시자의 질실함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8) 이연진, 「조선시대 월과문신 관련 규정 변화 연구」, 『교육연구논총』 41,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211~232면.

9) 이전에 서범종의 「조선 초기 문신권학정책」, 『한국교육』 31, 한국교육개발원, 2004, 151~152면)에서 문신권학정책으로서 월과를 다뤘지만, 기원과 운영 방식이 간략하게만 서술되어 그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하기 어렵다.

10) 이연진, 앞의 논문, 2020, 214면.

을 평가하고 공부를 권장하고자 했다. 출제부터 결과 보고 등 총괄 책임은 翰林院에서 맡았으며, 출제된 주요 문체는 詩와 賦였다.¹¹⁾ 시행 대상은 50세 이하 정4품 정도의 知制誥를 거치지 않은 중앙 관료와 지방 관료였다. 고려사 기록에서 채점 결과에 따른 상벌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權近(1352~1409)이 왕에게 문신권장책의 일종으로 월과를 건의하면서 그 시행 대상을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 및 한량 문신(과거 급제 후 實職이 주어지지 않은 인원)’으로 좁히고, 시험 시기를 매월 5일로 정했다.¹²⁾ 시험 결과에 따라 승진과 꺾출을 정했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세종대에는 집현전이 설립되면서 집현전 겸직 문신을 대상으로 월과를 시행했다. 1년에 4회(2, 5, 8, 11월), 表, 箋, 詩, 文의 형식 중 하나를 골라서 제출해야 했고, 등수는 매기지 않았지만 평점을 하여 능력에 맞는 직함을 가지도록 했다.¹³⁾

- 11) 『高麗史』 권3, 성종 14년(995) 2월 3일 己卯. “十四年, 春二月, 己卯, 教曰: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化成天下, 文之時義, 大矣哉! 予恐業文之士, 纔得科名, 各牽公務, 以廢素業. 其年五十以下, 未經知制誥者, 翰林院出題, 令每月進詩三篇賦一篇, 在外文官, 自爲詩三十篇賦一篇, 歲抄附計吏, 以進, 翰林院品題以聞.’”
- 12)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1407) 3월 24일 戊寅 첫 번째 기사. “一, 職帶館閣文臣及閑良文臣可將任用者, 令每月五日, 一次會藝文館, 相與講磨, 凡有文翰之事, 皆令製述, 擇其善者而用之, 考其能否, 以爲升黜. 閑良者才行勤慢, 亦令藝文館薦舉錄用, 其直館以上, 每日選揀東人詩文若干篇, 令其下官, 進稟政府及提調之處, 聽其取舍, 以成全書, 臺諫員, 每月考其勤慢. 一, 三館諸員, 令儒學提調每月一次考其所讀經史諸書, 錄名置簿, 年終秩滿當遷之時, 并書所讀經書多少, 上者超置清要, 中者隨例遷秩, 下者外敘.” 여기서 “직책이 관각을 띠고 있는 문신[職帶館閣文臣]”은 홍문관 및 예문관의 관료를, “三館의 여러 인원[三館諸員]”은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의 관료를 말한다.
- 13)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1430) 5월 27일 丙寅 다섯 번째 기사. “文臣三品以下至九品除臺諫, 擇有文藝數十人, 隨品兼集賢殿, 凡事大表箋及本國文書, 依知製教例製述, 集賢殿祿官, 依司諫院內製例, 必帶知製教, 兼官十人則帶外製, 本司無事日, 就本殿講學, 又於四書、五經、諸史、韓、柳文等書, 隨宜自占看讀, 每四仲月, 出

세조대 1456년에는 세종대의 집현전이 폐지되고, 젊은 관원들의 학문 진흥을 위해 예문관에서 월과를 시행했다.¹⁴⁾ 권근이 제안했던 월과에는 그 대상으로 예문관 관료가 포함되었는데, 세조대에 다시 제기된 것으로 보아 권근의 제안이 중도에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종 1년(1469)의 기록을 보면, 세조대에 제기된 월과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¹⁵⁾

검예문 제도가 성종 9년(1478)에 폐지되면서 홍문관이 예문관의 학술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실록에 ‘홍문관 월과가 언급되고, 이 시기 완성된 『經國大典』에서도 홍문관원을 대상으로 한 월과가 등장한다. 즉, 성종대에 비로소 월과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그 대상과 시행 규칙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홍문관 관리들이 각자 공부한 책을 문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당상관이 달마다 1차 강론시험을 받고 3차 제목을 내어 글짓기를 시킨 후(만 40세가 된 사람은 면제) 월말에 보고하고 연말에 통산하여 다섯 번 1등으로 첫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품계를 올려준다. (당하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사람은 벼슬을 올려준다)¹⁶⁾

위와 같이, 정례화된 월과의 대상은 ‘정3품 미만, 40세 미만의 홍문관원이다. 월과 운영은 정3품 이상인 당상관이 맡았다. 매월 당상관

表、箋、詩文一題，令祿官及兼官，不限日時製述，堂上官會本殿，勿第其高下，但加評點，二品以上文臣，於集賢殿堂上，量宜加差帶銜，其祿官兼官，遞帶經筵，以視優獎。”

- 14) 『세조실록』 권29, 세조 8년(1462) 8월 8일 경오 두 번째 기사. “職兼藝文館者，書名于籌，每月初一日十五日探得三人講經或製述，其通不通及製述等第並錄簿，歲抄開寫以啓.”;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1464) 7월 2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主文堂上每月朔望出詩文題，令兼藝文者製述，於歲抄通計，優等者進階，以爲敦勸之方.”
- 15)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1469) 8월 16일 丁卯 세 번째 기사. “前此文臣兼藝文者，月課製述肄習，今廢此法，文臣之業文者蓋寡，實爲不可，請復立.”
- 16) 『經國大典』禮典 獎勵. “弘文館官員，各以所讀書置簿，堂上官，每月一次考講，三次命題製述(年滿四十者免)，月季啓聞，歲抄通考，五次一等、居首者，加階。(階窮，則陞職).”

이 출제된 제목으로 세 번 제출해야 했으며, 등수를 연말에 통산하여 다섯 번 1등을 차지한 자는 품계를 올려주었다. 고과를 확실히 하여 문신들을 권학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전쟁과 기근으로 월과가 중단되었다. 영조 22년에 반포된 『續大典』은 그간 겪었던 시행착오와 월과 재개 논의를 바탕으로 수정된 월과 규정이 실려 있다. 『續大典』에서는 이전에 없던 ‘月課文臣’이라는 항목이 만들어졌다.

월과문신은 대제학이 뽑아 왕에게 보고하게 하고 (통훈대부 이하의 홍문관 관원과 문학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는 모두 뽑는다.) 해마다 4분기로 나누어 대제학이 시제를 내어 제출 시험을 보이고(奏文, 表文, 賦, 頌, 序, 贊, 議, 說, 論, 七言律詩, 排律詩, 五言律詩, 古詩 중에서 아홉 가지의 시제를 낸다.) 科次한 뒤 入啓하여 시상하거나 처벌한다. (깃지 않은 자와 지었으나 여섯 가지의 시제를 채우지 못한 자는 推考하고, 연이어 세 차례를 짓지 않은 자는 과직하며 -지방관인 경우에는 추고하며-, 연이어 세 차례 수석을 차지한 자는 加資한다)¹⁷⁾

위와 같이, 영조대에는 대제학이 월과의 출제와 성적 매김 및 상벌까지 전담했다. 원래 매월 치러지던 월과는, 매년 4회, 즉 3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출제 문체도 奏·表·賦·頌·序·贊·議·說·論·七言律詩·排律詩·五言律詩·古詩로 다양해졌다. 또한, 『續大典』에서는 이전에 비해 월과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1785년 정조대에 편찬한 『大典通編』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월과 제도의 변천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7) 『續大典』禮典 獎勸 月課文臣. “令大提學抄啓(通訓以下弘文館人員及有文名者, 並抄), 每年四等, 大提學命題試製(奏、表、賦、頌、序、贊、議、說、論、七言律詩、排律詩、五言律詩、古詩中, 出九題), 科次入啓賞罰(不作者及所作未滿六題者, 推考, 連三次不作者, 罷職-外任, 則推考-, 連三次居首者, 加資).”

왕조	시기	대상(나이, 관직)	시험 방법	채점 및 결과
고려	성종대 (935~)	-50세 이하 -지제고를 거치지 않은 자	매월 詩 3편, 賦 1편	연말에 검사
조선	태종대 (1407~)	-관각문신 -한량문신	매월 5일	-상등자 청요직 승진 -중등자 전례에 따른 遷秩 -하등자 外任으로 敍用
	세종대 (1430~)	집현전 문신	-1년에 4회 (2, 5, 8, 11월) -表 箋 詩 文 중 택일	-과차는 매기지 않음 -평점을 통해 능력에 맞는 직함 배치
	세조대 (1456~)	예문관원	매월 초1일, 15일	-通不通과 등급 기록 -1년 중 6월, 12월에 기록 통산 하여 우등생의 품계를 올려줌
	성종대 (1478~)	-홍문관원 -40세 미만	매월 3차례	월말 보고 및 통산하여 5번 1등 하면 품계를 올려줌
	영조대 (1746~)	-정3품 미만 홍문관원 -문학으로 이룬 자	-1년에 4회 분기별 -9가지 문체 중 출제	과차한 뒤 시상 및 처벌

〈표1〉 시대별 月課의 변천

위 표를 보면, 월과의 시행 기간이 ‘매월’에서 ‘분기별’로 바뀌고, 그 상별도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행 기간이 분기별로 바뀐 것은 문신들이 행정 업무로 인해 매월 답안을 제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시험 결과에 따른 상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월과를 시행하는 목적과 효용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조정의 의지가 드러난다.

월과를 치르지 않거나 응시 내용이 불성실한 사람은 태형을 받거나 추고를 당하고 체직되었다. 월과의 표절과 대작이 만연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⁸⁾ 이를 통해 시기와 상관없이 월과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

18) 『성종실록』 권90, 성종 9년(1478) 3월 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弘文館月課, 淑精全 犯元詩居首.”; 『연산군일기』 권39, 연산 6년(1500) 9월 26일 丁丑 첫 번째 기사. “月課之法, 載在大典, 其來已久. 世宗、世祖、成宗皆留意於斯, 未嘗少弛, 至今不廢, 甚盛典也. 近來士皆怠忽, 專不留意, 作者少, 而不作者過半. 縱有作者, 或借述於人, 苟充其數, 鄙俚無用, 有同兒戲. 且外官有文名者, 竝使製之, 已有著令, 然遞職之際, 多所遺漏, 不在作者之列, 以文學爲筌蹄, 不之省.”; 『중종실록』 권49, 중종 18년(1523) 9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非徒儒者之習爲然, 在廷文臣亦未聞有篤學者. 弘文館月課製述, 徒爲文具, 亦何有國家右文之意乎?”; 이의, 『星湖僿說』 권14, <人

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월과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¹⁹⁾ 월과의 본래 기능인 ‘勸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문신들이 책을 등한시하고, 제도의 시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과는 공식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었고, 조선 후기에도 신하들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대한 본래 기능을 유지하려고 했다.²¹⁾ 이는 조정의 군신들이 월과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학자를 양성하고 권학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월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월과는 과거제가 폐지된 19세기 말까지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事門 館課>. “國朝有月課之法, 必揀選文臣, 以詩、律、表、箋、奏、議之類, 試其優劣爲課, 終歸無用之具. 應之者, 皆倩手代述, 亦多廢閣不舉.”; 이덕무, 『청장관장서』 권31, <사소절 8 事物>. “館學月課, 士子浮薄, 近日陋習也. 童子假手呈券, 凌辱試官, 尤爲猖狂, 爲父兄者, 不可使穉子, 隨例紛拏, 學其滛靡, 損壞良心.”

- 19) 『현종실록』 권5, 현종 3년(1662) 7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正言沈攸: ‘以終禫之月, 不暇念及於月課文字, 未及製呈, 旣在應推之中, 決難仍冒.’” 沈攸(1620~1688)는 당시 부친상을 당한 지 2년이 되었고, 장사를 지낸 지 2년 만에 지내는 제사인 ‘禫祀’를 끝내느라 월과를 제출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 20) 『정조실록』 권1, <정조 대왕 행장>. “近來年少文官, 纔決科第, 束閣書籍, 習俗轉痴, 矯革未易, 雖有專經之規, 月課之式, 作輟無常, 名實不符.”
- 21) 『순조실록』 권24, 순조 21년(1821) 8월 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王, 以文臣專經之講, 月課之製, 作輟無常, 非作成之道, 命政府, 抄啓槐院參上參外三十七歲以下人, 月講經史, 旬試程文, 考優劣行賞罰.”; 『철종실록』 권11, 철종 10년(1859) 3월 2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領議政鄭元容啓言: ‘近日之最可悶者, 名官之不好文也. 臣意則遠做月課之制, 近敢抄啓之規, 四十以下文官, 令文衡閣提抄選, 每月一以製述各體, 一以考講經書, 通一年計其劃數論賞, 則實爲右文之道矣.’……元容曰: ‘筵退後, 當參互月課, 抄啓規例, 成節目入啓矣.’”

3. 姜栢年의 월과 작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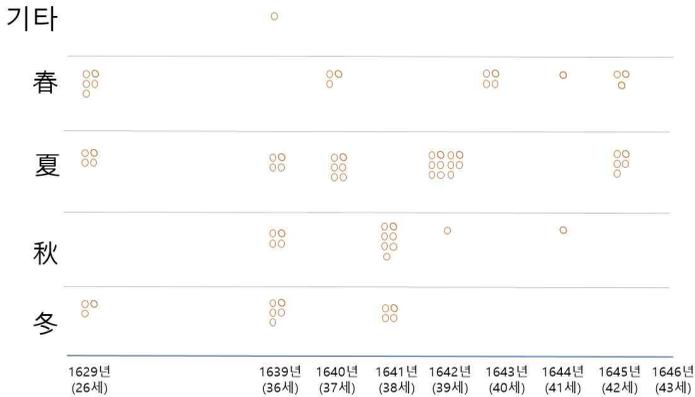
지금까지 고려 및 조선시대 문신 제술인 월과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월과로 쓰인 작품들은 문집에 실릴 때 ‘月課’, ‘館課’로 표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월과가 ‘課作’, ‘課題’라고 표기되기도 해서 작가의 생애를 살펴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문신으로서 응한 작품인지 유생으로서 응한 작품인지 알 수 없다.

다만 17세기 문신 姜栢年(1603~1681)은, 본인의 문집에 월과에 응시한 작품을 문체별로, 시기별로 다수 실어놓았고 장원 여부도 기록해 두어서 월과로 출제된 문체와 그 모범 답안을 유추할 수 있다.

강백년은 1627년 정시 문과에 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으며, 이후 강원도사, 함경도사, 대동찰방 등 직책에 보임되었으나 병 때문에 부임하지 않았다. 1637년에는 예조좌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정언, 장령 등을 역임했다. 1646년에는 <擬漢諫大夫夏侯勝謝諭以無懲前事表>로 重試에서 장원을 차지한다.²²⁾ 강백년의 문집 『雪峯遺稿』에는 강백년이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간 이듬해부터, 중시에 합격하여 동부승지에 오르기 전까지 월과에 응시하여 제출된 작품 총 72편(시 51편, 부 4편, 산문 17편)이 실려 있다.²³⁾ 시기순으로 작품 분포도를 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22) 강백년의 생애는 임상원, <崇祿大夫判中樞府事兼知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藝文館提學,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雪峯姜公行狀>, 『雪峯遺稿』 권30, 『한국문집총간』 103, 1993, 342면 참조.

23) 1746년 『續大典』이 편찬되기 전인데도 강백년은 계절별로 월과에 응시했고, 그 문체 또한 表·詔·上梁文·賦·說·記·論·箴銘·傳 등으로 다양했다는 것은, 『續大典』에서 정례화된 월과 제도와 관련된 규칙이 이미 전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 강백년 월과 작품 계절별 분포

1629년은 강백년이 급제한 뒤이며, 26세다. 1646년은 증시에 합격하여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이때 나이는 43세다. 강백년은 증시에 합격하여 당상관이 된 이후로는 규칙에 따라 월과에 응시한 적이 없다.

1629년은 2년 만에 월과가 재개된 시기다.²⁴⁾ 나라에 국상이나 흉사가 있으면 월과를 비롯한 각종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데, 1627년은 정묘호란으로 인해 월과가 잠시 중단되었다. 강백년이 과시에 합격한 해도 1627년이니, 문집에 실린 1629년 작품들은 강백년의 첫 월과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1630년에서 1638년 사이에 강백년의 월과 작품이 없다. 이 또한 국상으로 인해 월과가 잠시 중단된 것이다. 1632년 8월 13일에는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의 상이 있었고,²⁵⁾ 1636년 1월 16일에는 인조의 정비 인열왕후의 상이 있었다.²⁶⁾ 같은 해 12월에는 병

24) 『승정원일기』 24책, 인조 7년(1629) 1월 4일 경신 네 번째 기사. “弘文館啓曰：‘往年胡變之後，月課製述，亦爲姑停，已經二年。請今年春三朔爲始，被抄文官，並令依前製進。’傳曰：‘允。’”

25) 『승정원일기』 38책, 인조 10년(1632) 11월 8일 임인 세 번째 기사. “弘文館官員以大提學意啓曰：‘月課製述，因國恤，姑爲停止矣。冬三朔爲始，使之製述，何如?’傳曰：‘依啓。’”

자호란이 있었다. 이외에도 월과 공백이 10년이나 되는 것은, 지병으로 직책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⁷⁾

『雪峯遺稿』에 실린 월과 작품 총 72편 중에서 강백년은 36편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그만큼 강백년은 월과 작성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집에 과문을 신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을 고려하면, 강백년의 문집에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월과 작품이 실려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강백년의 월과 작품 중에서 表에 집중하기로 한다. 表는 월과 작품 중 가장 많이 출제된 문체다.²⁸⁾ 이를 통해 17세기 중반 조선시대 월과 창작 경향의 일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강백년의 월과 表의 특징

『한국문집총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강백년이 월과로 지은 表는 총 5편이다. 모두 擬作이며, 이중 세 편은 장원을 차지했다. 5편 모두 본문 구성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虛頭는 ‘長-短-短-長句’이며, 結尾에서 끝의 두 구는 ‘短-長句’로 마무리하여 정해진 틀을 보여준다.²⁹⁾ 또

- 26) 『승정원일기』 51책, 인조 14년(1636) 4월 20일 갑오 여덟 번째 기사. “陸敘欽啓曰: ‘正月十八日禮曹公事, 數字缺國恤卒哭前, 凡干科舉試才, 議政府科試, 弘文館月□, 承文院肄習等事, 並爲停廢, 今亦依此舉行事, 啓下矣. 卒哭二十四日, 而篆文日次二十五日, 朔書二十七日, 並依前知委施行, 何如?’” 여기서 말하는 ‘國恤의 卒哭’은 인조의 정비 인열왕후의 상에 대한 졸곡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27) 임상원, <崇祿大夫判中樞府事兼知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藝文館提學,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雪峯姜公行狀>, 『雪峯遺稿』 권30, 『한국문집총간』 103, 1993, 342면 참조.
- 28) 『한국문집총간』을 살펴본 결과, ‘월과’로 지어졌다고 표기된 산문은 총 105편이었고, 이중에서 가장 많은 문체는 表였다. 물론 『한국문집총간』에서 월과로 표기된 작품이 조선시대 월과 작품의 총집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월과로 창작된 문체의 비중을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 29) 여기서 말하는 장단구는 단순히 글자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 구성이 단문이나 복문이나에 따라 나뉜다. 이상욱, 앞의 논문, 2015, 141면.

한 5편 모두 조선 科表의 평측법인 ‘가위림[鈇簾]’을 지켰다.³⁰⁾ 보통 과표에서는, 활용한 전고와 관련된 문구를 허두와 결미에 직접 인용 하는데,³¹⁾ 강백년의 과표에서는 허두와 결미는 물론 본문에서도 전고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주목할 만한 특징을 알아보자.³²⁾

4.1. 의작을 통한 창의성 추구

과표는 대부분 의작이다.³³⁾ 출제자는 응시자에게 의작을 짓게 하여, 응시자가 전고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시험하고 역사적 상황에서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안을 확인한다. 『한국문집총간』에서 ‘月課’라고 표기된 表 14편만 보아도 모두 의작이다.³⁴⁾

강백년이 월과로 지은 표도 모두 의작으로 지어졌으며, 화자로 등

30) 가위림이란 句末字의 평측은 한 연 내에서 상반되게 놓여 연과 연 간에도 상반되게 놓는 것이다. 김동석, 앞의 책, 2021, 202면.

31) 이상욱, 앞의 논문, 2015, 139면.

32) 이하 3개의 특징은 모두 작품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며, 강백년이 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필자가 추측한 것이다. 이 특징 자체가 당대의 평가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33) 이상욱, 앞의 논문, 2015, 118면.

34) 『한국문집총간』에서 문신 제술로서 월과임을 밝히고 있는 표는 강백년의 작품 5편을 제외하면 총 9편이다. 李光胤(1564~1637), <擬宋知潭州南嶽廟朱熹請加意本原之地以應天下之務表>(『漢西集』 권5, 『한국문집총간』 속13, 2006, 271면); 李民宥(1570~1629), <擬宋監南嶽廟朱熹請加意本原之地以應天下之務>(『敬亭集』 권12, 『한국문집총간』 76, 374면); 姜碩期(1580~1643), <擬本國謝降勅冊封仍賜銀兩綵段表>, <擬黃帝群臣賀平蚩尤表>(『月塘集』 권5, 『한국문집총간』 86, 1992, 367면); 沈之源(1593~1662), <擬唐同平章事裴光庭請給吐蕃所求詩書表>(『晚沙稿』 권2, 『한국문집총간』 속25, 2006, 260면); 鄭必達(1611~1693), <擬伏羲羣臣賀鍊石補天表>(『八松集』 권4, 『한국문집총간』 속32, 2007, 211면); 申混(1624~1656), <擬漢石奮謝拜太子太傅表>(『初菴集』 권7, 『한국문집총간』 속37, 2007, 69면); 蘇斗山(1627~1693), <擬宋崇政殿說書程頤請俟初秋即令講官輪日入侍>(『月洲集』 권3, 『한국문집총간』 127, 1994, 289면); 朴泰輔(1654~1689), <擬宋開封府推官蘓軾請勿買漸熿表>(『定齋後集』 권2, 『한국문집총간』 168, 1996, 319면).

장하는 역사적 인물도 시기적으로 광범위하다. 정경, 위현후, 주공처럼 특정 인물이기도 하지만, ‘은나라 조정 신하들처럼 복수의 화자이기도 하다. 특히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囀新詞表>는 화자가 사람이 아닌 ‘피꼬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요를 보자.

- ① 허두(1~4구): 현종 칭송, 신하(금의공자)의 신분과 처지 요약
- ② 본문
 - ②-1 5~7구: 표를 쓴 배경
 - ②-2 8~11구: 현종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
 - ②-3 12~20구: 이백의 시에 대한 평가와 현실에 대한 감회
- ③ 결미(21~25구): 현종 칭송, 신하로서 결의 다짐³⁵⁾

의작은 사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지만, 역사에 실재하지 않았던 일을 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을 갖는다.³⁶⁾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囀新詞表>는 사실을 얘기하되, 그 화

35) 강백년,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囀新詞表>, 『雪峯遺稿』 권22, 『한국문집총간』 103, 1993, 215면. “① 辭欲巧而未能巧, 不足聽聞, 擇善鳴者假之鳴, 濫承吹獎. 聲價百倍, 瞻聆共嘆. 伏念臣質愧蜚英, 智味知止. 清聲呢呢, 謾效兒女曹音容, 濁世翩翩, 素乏佳公子風采. ②-1 假飾黃裳之正色, 濫竊金衣之美名. 鴻漸陸羽儀於朝, 曾是不料, 鶴鳴臯聲聞於野, 夫豈所能. 紫禁煙花, 幸隨春色而朝謁, 瑤池歌管, 斗覺華筵之勢高. ②-2 花奴奏樂於殿前, 聽猶未足, 玉女投壺於座側, 笑不爲新. 開口吐胸中之奇, 此其時矣, 和聲鳴國家之盛, 惡可辭乎. 敢效桑濮之哇聲, 仰溷簫韶之仙樂. 欲囀未囀, 豈知音韻高低, 謂歌非歌, 且味節奏清濁. ②-3 何圖鳳池之恩渥, 特撰鶴天之新詞. 洒寶唾於騷壇, 神鬼暗泣, 分天章於帝杼, 雲漢昭回. 都將百囀流音, 輸入一篇清製. 寫問關斷續之態, 玉碎毫端, 費多少短長之吟, 花添錦上. 況白也無敵之技, 有天然不飾之工. 字字新奇, 陶冶瀛洲之物色, 聲聲清絕, 摸出玉京之春容. 纍纍乎如貫珠之形, 飄飄然有凌雲之思. 赤幘子之報曉, 未聞協律之規, 青鳥氏之司開, 亦無褒獎之典. 顧微臣所能者烏有, 受今日不世之鴻恩. ③ 伏遇作樂崇德, 與物爲春. 聞仙譜於月中, 創制霓裳之曲, 鎖奇姿於籠裏, 賜號雪衣之娘. 遂令幽谷之微蹤, 亦蒙樂府之異數. 臣敢不樂與衆, 欣欣自私. 接鸞班而翱翔, 縱愧乘軒之寵, 爲羽聲而慷慨, 庶追知音之備.”

36) 우지영, 「의작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韓信 소재 의작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348면.

자를 피꼬리로 의인화하여 현종이 내린 은혜가 만물에게 미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임금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피꼬리이기에 왕이 <百囀新詞>를 찬하도록 한 결과와 효과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진다.³⁷⁾ 물론 ‘금의공자’는 작품에서 ‘臣’으로 표시되어 신하가 왕에게 사안과 사정을 간곡히 전달하는 표 문체의 본령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그 가상의 화자를 사람이 아닌 동물로 설정하여 왕에 대한 감사, 이백의 시에 대한 찬사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할 수 있었다.

화자는 비교를 통해 본인을 겸손하게 표현함으로써 현종의 덕성을 부각했다. 화자는 “맑은 소리로 지저귀고[淸聲呢呢]”, “흔탁한 세상을 초탈[濁世翩翩]한 자연물임을 명시하면서도 “아녀자의 음성으로 우는[兒女賻音容]” 존재이며 “아름다운 공자[佳公子]”는 아닌 미미한 존재임을 밝힌다. 본인의 소리가 음탕한 음악에 속해 “소소의 선악을 더럽히며[溷簫韶之仙樂]”, 신분에 맞지 않게 “악부에 오르는 은총[樂府之異數]”을 입었다면서 임금의 은혜와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제19구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기능을 하는 관원 “적책자[赤幘子]”와, 계절을 알려주는 왜가리의 기능을 하는 관원 “청조씨[靑鳥氏]”는 임금의 은택을 따로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금의공자가 받은 임금의 은택이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은 2]3에서 이백의 글에 대한 평가가 다소 길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같은 시기 같은 시제로 安獻徵(1600~1674)이 작성한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囀新詞表>와 비교해도 그 분량이 길다.

37) 당 현종의 명령으로 이백이 지은 시의 원제목은 <용지에 버들가지가 막 푸르고 새 피꼬리가 재잘대는 소리를 듣고 지은 노래를 짓다[侍從宜春苑奉詔賦龍池柳色初靑聽新囀百囀歌]>이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百囀新詞>라고 표기한다. 『李太白集』 권6.

강백년(7/25구)	안현징(2/20구)
12. 何圖鳳池之恩渥 特撰鶴天之新詞 13. 洒寶唾於騷壇 神鬼暗泣 分天章於帝杼 雲漢昭回 14. 都將百嘯流音 輸入一篇清製 15. 寫間關斷續之態 玉碎毫端 費多少短長之吟 花添錦上 16. 況白也無敵之技 有天然不飾之工 17. 字字新奇 陶冶瀛洲之物色 聲聲清絕 摸出玉京之春容 18. 纍纍乎如貫珠之形 飄飄然有凌雲之思	09. 何圖紫籙之宣詔 特令青蓮而撰詞 10. 鳳掖仙才 寫出綿蠻之語 鶴天清藻 模得宛轉之聲 ³⁸⁾

〈표2〉 강백년과 안현징의 〈百嘯新詞〉 평가 비교

위와 같이 안현징은 총 20구 중 2구(제9~10구)에서만 이백의 문사를 언급한다. 안현징은 제9구에서 이백이 <百嘯新詞>를 짓게 된 사실을 얘기하고, 제10구에서는 <百嘯新詞>에 대해 “清藻”라고 평가했다. 강백년도 제12구에서 이백이 <百嘯新詞>를 짓게 된 사실을 얘기하면서 <百嘯新詞>에 대한 평을 서술하는데, 안현징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제13~14구에서는 타인의 빼어난 시문을 뜻하는 “보배로운 침(寶唾)”, 시문이 문과 도의 혜택을 널리 입혔다는 뜻인 “은하수가 밝은 빛을 회복하다(雲漢昭回)”라고 말했다. 제16구에서는 이백의 재능이 무적이라고 말한 두보시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에게 꾸미지 않은 천연의 솜씨가 있다고 말했다.

강백년과 안현징 모두 <百嘯新詞>에 대해 “清製”, “清絶”이라고

38) 안현징,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嘯新詞表>, 『鷗浦集』 권4, 『한국문집총간』 속 28, 526면.

평가했는데, 강백년은 더 나아가 이백의 시문을 “新奇”라고 평했다. 이 부분은 임금의 은택과 은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길게 서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謝表의 목적은 신하가 임금에게 사은하고, 임금의 덕업을 칭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를 대상으로 한 시를 이백이 지었기 때문에 화자 입장에서 이백의 <百疇新詞>를 평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기회를 제공한 현종의 덕성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의작으로 지어진 표는 실제 작가의 실질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 가상 인물의 상상된 실질이 반영된 것이다.³⁹⁾ 그러나 그 가상 화자를 동물로 표기함으로써 임금의 은택이 넓게 미침을 보여주면서도, 이백의 시를 평가하는 응시자의 詩眼까지 시험해볼 수 있다.

4.2. 맥락에 맞는 이미지 활용

표는 정해진 틀에서 상대를 칭송하면서 자신의 심중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⁴⁰⁾ 또한 변려문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수사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백년은 가상 화자나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 강백년의 <擬殷朝群臣賀祥桑穀枯死表>는 논의의 대상이 식물이기 때문에 작품 전반에서 식물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상상곡이라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한 아름이나 자란 현상을 설명하고, 이것을 ‘식물의 본성을 잃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재앙이 복으로 바뀐 일은 틀림없이 왕이 덕성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허두부터 결미까지 현상에 대한 설명과, 왕에게 하례하는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구성했다. 이 작품이 완결성을 갖춘 이유는 ‘상상곡이라는 대상과 비교 및 대조할 수 있는 식물 이미지를

39)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회지』 39, 대동한문학회, 2013, 119면.

40) 劉勰, 『文心雕龍』, <章表 第二十二>. “原夫章表之爲用也, 所以對揚王庭, 昭明心曲.”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다.

04. 翠莢抽庭 占旬朔於榮歇

楮鞭催木 驗遲速於發生

푸른 명협이 뜰에서 자라자 피고 지는 데서 순삭을 알았고

붉은 채찍으로 나무를 재촉해 더디고 빨리 자람을 증명하였습니다

11. 苞桑休否 大人吉於其亡

生木爲升 君子順則無咎

뽕나무에 매어놓은 듯 안정되고 비색함을 그치게 하니

대인은 망할까 걱정하는 것에서 길함을 얻고

나무가 자람이 쉬이니 군자가 법칙을 따르고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 如木從繩 縱賴伊陟之直諫

清源端本 實出聖人之自心

만약 나무가 먹줄을 따르는 것처럼 비록 이척의 직간에 힘입었다고 해도

원인을 맑게 하고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실로 성인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伏念臣等

17. 草芥微賤

土木愚頑

삼가 생각건대 신들은

초개처럼 미천한 몸이며

흙과 나무처럼 어리석고 완악합니다⁴¹⁾

위 인용문처럼 식물의 이미지를 작품 전반에 동원한 것은, 초목의 일을 초목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人事와 연결했기 때문이다. 제4구에서 “명협[翠莢]”은 요임금 때 뜰에 났다는 상서로운 풀이다. 매월

41) 번역은 강백년 저, 강원도 외 2인 역, 『국역 설봉유고6』, 문진, 2021, 43~46면을 필자가 참고 및 수정한 것이다.

초하루부터 15일까지는 매일 한 잎씩 나오고, 16일부터 그믐날까지는 매일 한 잎씩 떨어진다고 한다. 초목의 일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감을 유추할 수 있었다. 즉, 상상곡의 자람과 시들을 통해 인사의 영고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제11구에서는 중중이 덕을 잘 쌓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周易』 <否卦> 九五에 나오는 “비색함을 그치게 하는지라 대인의 길함이니, 망할까 망할까 하고 노심초사해야 무더기로 난 뽕나무에 매어 놓은 것처럼 안정되리라[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라는 구절과, 『周易』 <升卦 象>에 “땅 가운데 나무가 자람이 사이니 군자가 보고서 덕을 순히 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地中生木, 升, 君子以, 順德, 積小以高大].”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이 구절들은 중중이 경계하고 조심하며, 덕을 잘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식물과 관련된 전고를 동원했기에 잘못 자랐다가 시들어버린 상상곡과 대비되는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상상곡이 죽은 것은 이척의 도움도 있었지만 결국 왕이 문제의 원인을 바로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설명할 때에도 강백년은 나무가 먹줄을 따르는 『書經』의 전고를 활용했다.⁴²⁾ 제17구는 신하들이 검사로 자신을 표현한 부분이다. 이 또한 ‘초개와 ‘토목’이라는 표현을 써서 식물 이미지를 연상시키려고 했다.

앞에서 언급한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疇新詞表>는 화자가 동물인 만큼, 새와 관련된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03. 質愧蜚英

智昧知止

자질이 蜚英에는 부끄럽고

지혜는 그칠 곳을 알지 못합니다

42) 『書經』 <說命>에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발라지고, 임금이 간언을 따르면 착해진다 [惟木從繩則正, 后從諫則聖].”라고 하였다.

06. 鴻漸陸羽儀于朝 曾是不料

鶴鳴臯聲聞于野 夫豈所能

점차 승진하여 조정에 의법이 되리라고는 일찍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높에서 우는 학의 울음소리가 들관에 들리는 것과 같은 일을
어찌 제가 하겠습니까

25. 接鶴班而翺翔 縱愧乘軒之寵

爲羽聲而慷慨 庶追知音之備

鶴班을 만나 높이 나니 비록 승헌의 총애에는 부끄럽지만
羽聲을 만들어 강개하니 음률을 아는 하인으로 따르겠습니다⁴³⁾

제3구에서 신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飛와 통하는 “蜚”를 썼으며, 『詩經』에 나오는 피꼬리가 언덕에 앉아있는 구절과, 이에 대해 공자가 덧붙인 “그칠 곳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이어지도록 했다. 동물의 일을 통해서 인사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제6구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학’과 대조하여, 은거하는 군자의 덕이 멀리 미치는 것을 자신은 하지 못한다는 겸사를 썼다. 제25구에서는 자신이 조정 백관들의 대열에 끼서 총애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신하로서 결의를 다지는 구절이다. 이 구에서는 조정 백관을 뜻하는 ‘원반’을 활용했다. 이는 기러기떼를 연상하는 단어로, 화자가 새인 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1645년에 장원을 차지한 <擬唐鄭綰辭同平章事表>에서는 정경이 혈후시로 세상을 풍자했던 것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활용했다.

01. 言無實者不祥 祗俟郵罰

負且乘則致寇 敢當誤恩

말에 진실성이 없는 자는 길하지 못하니

43) 번역은 강백년 저, 강원모 외 2인 역, 앞의 책, 2021, 58~64면을 필자가 참고 및 수정한 것이다.

다만 허물에 따라 벌을 받기를 기다리겠으며
등에 지고 또 수레를 타서 도적을 오게 하니 잘못 배푸신 은혜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02. 懇實由中

辭非飾外

신의 간절함은 진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말로 겉을 치장한 것이 아닙니다

05. 空將謾興而吟詩

可知易言也無責

부질없이 흥이 나는 대로 시를 읊으려 했으니
말을 쉽게 함은 실언에 대해 꾸짖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07. 何圖分外之洪私

遽及歇後之賤品

어찌 분수에 넘치는 큰 은혜가
갑자기 혈후체나 쓰는 미천한 신에게 이를 줄 알았겠습니까

16. 持論不根 縱愧以俳優而進

清談誤世 庶幾免放曠之歸

지론이 확고하지 못하니 비록 부끄럽게도 광대처럼 말씀을 올리겠지만
정답이 세상을 더럽혀서 부디 방종으로 귀결됨을 면하길 바라겠습니다⁴⁴⁾

강백년은 <擬唐鄭緊辭同平章事表>의 허두-본문-결미에서 말[言]과 관련된 전고를 두루 썼다. 정경은 혈후시로 세상을 풍자했는데, 昭宗은 그가 그러한 작품을 쓰는 것은 가슴속의 뜻을 다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를 예부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에 등용했다.⁴⁵⁾ 이를

44) 번역은 강백년 저, 강원모 외 2인 역, 앞의 책, 2021, 39~42면을 필자가 참고 및 수정한 것이다.

45) 『자치통감강목』 권52 <唐紀> 乾寧 원년조 참조.

계기로 정경이 辭表를 쓴 것이다. 정경이 관직에 등용되어 임금의 은혜를 받은 것은 결국 그의 言辭 때문이다. 강백년은 말[言]과 관련된 전고를 동원하여 정경이 관직을 사양한 맥락을 나타내고자 했다.

제1구에서 『孟子』 <離婁 下>에 나오는 “言無實者不祥”을, 제5구에서 『孟子』 <離婁 上>에 나오는 “人之易其言也, 無責耳矣.”를 써서 그간 혈후시로 세상을 풍자했던 정경 본인을 겸손하게 나타냈다. 제2구에서는 이 표를 작성한 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지 혈후시를 쓴 것처럼 말로 길을 치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辭非飾外]. 제7구에서는 비로소 혈후시로 세상을 풍자했던 자신이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16구에서는 임금의 은혜로 인해 淸談에 빠지는 것을 면했다고 했다. 청담은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淸淨無爲와 空理空談을 일삼았던 일과다. 강백년이 결미에서 청담을 언급한 것은, 본인이 지은 혈후시가 임금의 은혜에 부합되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이단에 빠져 세상을 미혹시키는 데에는 미치지 않았음을 자부한 것이다.

강백년이 言과 辭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정경의 특징을 부각하려고 한 점은, 같은 시제의 鄭昌胄(1606~1664) 작품과 비교해보아도 두드러진다.

09. 詩本性情 大旨則直言其事

語涉謗訕 過激者必忤於時

시는 성정에 근본하는 것이니 큰 뜻은 그 일을 직언하며

말은 비방을 섭렵하니 지나치게 격렬한 것은 반드시 시대를 거스릅니다

10. 豈料歇後之章

反沽無前之寵

어찌 혈후의 문장을 헤아려

도리어 이전에 없던 총애를 파시는 것입니까

28. 辭尊居卑辭富居貧 豈憂蚊負

말을 높이고 거하는 곳을 낮추며 말을 풍부하게 하고
 거하는 곳은 가난하게 할 것이니
 어찌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지게 하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⁴⁶⁾

위 작품은 총 28구 중에서 정경의 혈후시 및 언사와 관련된 언급이 다. 정창주는 본문 초반인 제9~10구에서 정경이 혈후시를 지었던 사실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가정했다. 이로써 임금의 은혜가 과분함을 표현할 수 있었다. 마지막 제28구는 정경이 언사를 경계하면서 끝까지 관직을 사양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 의지가 강백년의 작품 속 정경보다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게다가 “蚊負”는 『莊子』 <應帝王>에 “그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바다를 맨몸으로 건너고 하수를 파며,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지게 하는 것과 같다[其於治天下也, 猶涉海鑿河, 而使蚊負山也].”라고 한 데서 인용했다. 정창주는 정경이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관직을 사양하고 언사를 경계한다고 설정한 반면, 강백년은 辭表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정경이 본인만의 詩體로 세상을 풍자하고자 했던 자부심이 느껴지도록 서술하여 화자의 심정을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다.

1640년 여름에 지은 <擬漢關內侯韋玄成謝拜淮陽中尉表>은 한나라 위현성이 관내후로 삭직되었다가 회양 중위로 임명된 것에 대해 왕에게 감사해하는 표다. 위현성과 그의 부친 韋賢, 그의 조부 韋孟은 경학에 밝아 명망이 높고 모두 현달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자손에게 황금 한 바구니를 물려주는 것보다 경전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낫다[遺子黃金滿籩, 不如一經].”라고 했다.⁴⁷⁾ 강백년은 가상의 화자로 위현성을 설정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에 착안

46) 정창주, <擬唐鄭縉辭同平章事表>, 『晚洲集』 권3, 『한국문집총간』 속30, 274면.

47) 『漢書』 卷73 <韋賢傳> 참조.

하여 부자 혹은 가족 간의 관계를 연상하는 전고를 활용했다.

01. 少也爲孤 素乏幹蠱之譽
多其有讓 濫承錫爵之恩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어
평소에 아버지의 일을 잘 주관한다는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겸손한 것을 좋게 보시고 작위를 내리는 은전을 외람되이 받들었으니

伏念臣
03. 無能爲役
不肖之兒
삼가 생각건대
신은 심부름하기에도 부족한
불초한 자식입니다
04. 恐墜家聲 敢曰肯堂肯構
賴承庭訓 粗知事父事兄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릴까 두려운데
감히 집터를 닦고 집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다행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부모와 형제를 섬기는 도리를 조금 알 뿐인데
05. 頃遭閔凶
誤忝世祿
지난번에 흉상을 만나
주제님께 세록이 더해졌습니다
06. 有幽憂之病 迺瘳厥官
抱罔極之悲 敢有他志
깊은 근심으로 병이 생겨 관직을 소홀히 하였으나
망극한 슬픔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지 감히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⁴⁸⁾

위 작품은 총 21구 중에서 허두와 본문 초반에 부자 혹은 가족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전고를 동원했다. 제1구에서 『周易』 <蠱卦> 初六에 “아버지의 일을 주관함이니, 자식이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허물이 없어진다.[幹父之蠱, 有子, 考无咎].”는 말과 제3구에서 『춘추 좌씨전』 成公 2년 기사에 나오는 “나 克은 선대부에 비하면 그분들의 심부름꾼이 되기도 부족하니, 800승을 청합니다[克於先大夫, 無能爲役, 請八百乘].”의 구절을 인용하여 아버지 위현을 의도적으로 언급했다. 제4구에서는 『書經』 <大誥>의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하여 이미 설계까지 끝냈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집터도 닦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이 완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不肯堂 矧肯構].”라는 말을 원용하여 위현성이 가문의 한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5구에서 말하는 “悶凶”은 위현이 죽고 위현성이 아버지의 작위를 이어 받아 永光 2년에 승상이 된 일을 말한다. 제6구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관직에 소홀한 탓에 탄핵을 받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임금이 회양 중위에 임명해준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3. 목적에 맞는 전고 배치

가상의 화자와 배경에 맞는 전고를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표문의 특징이다.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轉新詞表>에서도 이백의 <百轉新詞>에 등장하는 용어를 많이 차용하고 있다. 이는 같은 시제의 안현징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48) 번역은 강백년 저, 강원모 외 2인 역, 앞의 책, 2021, 47~48면을 필자가 참고 및 수정한 것이다.

강백년	안헌징
<p>東風已綠瀛洲草, 紫殿紅樓覺春好. 池南柳色半青青, 縈烟裊娜拂綺城. 垂絲百尺挂雕楹, 上有好鳥相和鳴, 閭關早得春風情. 春風卷入碧雲去, 千門萬戶皆春聲. 是時君王在鎬京, 五雲垂暉耀紫清. 仗出金宮隨日轉, 天回玉輦繞花行. 始向蓬萊看舞鶴, 還過蒞若聽新鶯. 新鶯飛繞上林苑, 願入簫韶雜鳳笙.</p>	<p>東風已綠瀛洲草, 紫殿紅樓覺春好. 池南柳色半青青, 縈烟裊娜拂綺城. 垂絲百尺挂雕楹, 上有好鳥相和鳴, 閭關早得春風情. 春風卷入碧雲去, 千門萬戶皆春聲. 是時君王在鎬京, 五雲垂暉耀紫清. 仗出金宮隨日轉, 天回玉輦繞花行. 始向蓬萊看舞鶴, 還過蒞若聽新鶯. 新鶯飛繞上林苑, 願入簫韶雜鳳笙.</p>

〈표3〉 〈百轉新詞〉에서 강백년과 안헌징이 차용한 용어 비교

위의 표는 강백년과 안헌징이 표문에 차용한 이백의 <百轉新詞> 용어를 **진한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강백년과 안헌징의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轉新詞表>는 모두 어떠한 성적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강백년은 월과에 자부심이 있었고, 안헌징 또한 이후 월과에서 연이어 세 차례나 장원을 차지했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지은 <擬唐金衣公子謝命李白撰百轉新詞表>는 모범적인 과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⁴⁹⁾

그러나 정해진 시제와 관련된 작품의 용어를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배치에서 작가의 창작 능력이 드러난다. 강백년이 1641년 장원을 차지한 <擬周公進七月篇表>는 四時의 농사 짓는 풍경을 읊은 시인 <七月>을 주공이 올리는 것을 본떠 지은 것이다.

<擬周公進七月篇表>에서는 백성들이 계절별로 해야 할 일을 설

49) 『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1641) 5월 1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玉堂啓曰: ‘月課製述人員, 連三次居首, 則自前有陞資之例. 副司直安獻徵連三次居首, 合有依前施賞之典.’ 上從之.”

명할 때 <七月>에 나오는 구절을 차용하여 본문 중간인 ②-2에만 배치했고, 허두(①)와 본문 초반(②-1), 본문 후반(②-3)과 결미(③)에는 주공과 성왕과 관련된 전고를 쓰고 있다.

『詩經』〈七月〉	강백년, 〈擬周公進七月篇表〉
<p>七月流火, 九月授衣. 一之日疇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三之日手耜, 四之日舉趾, 同我婦子, 饁彼南畝, 田峻至喜.</p> <p>七月流火, 九月授衣. 春日載陽, 有鳴倉庚, 女執懿筐, 遵彼微行, 爰求柔桑, 春日遲遲, 采芣祁祁, 女心傷悲, 殆及公子同歸.</p> <p>七月流火, 八月萑葦. 蠶月條桑, 取彼斧斨, 以伐遠揚, 猗彼女桑. 七月鳴鵙, 八月載績, 載玄載黃, 我朱孔陽, 爲公子裳.</p> <p>四月秀葷, 五月鳴蜩, 八月其穫, 十月隕箠. 一之日于貉, 取彼狐貉, 爲公子裘, 二之日其同, 載纘武功, 言私其縱, 獻豸于公.</p> <p>五月斯螽動股, 六月莎雞振羽, 七月在野, 八月在宇, 九月在戶, 十月蟋蟀, 入我牀下. 穹窒熏鼠, 塞向墮戶, 嗟我婦子, 日爲改歲, 入此室處.</p> <p>六月食鬱及薁, 七月亨(烹)葵及菘,</p>	<p>① 天位孔艱 所戒者逸 民情可見 其監于茲 兀上一篇 眼前千里 欽惟我后 卽祚以後 恤民是先 念 <u>遺大投艱于身 無疆惟恤</u> <u>茂對時育物之德 不見是圖</u></p> <p>②-1 顧惟群生之戚休 實係一心之敬怠 是有丕子之責 其敢荒寧 不知小人之依 則何保惠 故勞者須歌其事 是詩也非偶然成</p> <p>②-2 耕穫蓄畬 物土宜於百畝 衣服飲食 順月令於四時 吟蟋蟀於秋郊 築我場圃 鳴鳧鷖於春日 執彼懿筐 公則獻豸而納水 私焉殺羔而置酒 索綯乘屋 其可緩乎 剝棗烹葵 亦維時矣 一年十二月 首稱流火之辰 八章三百言 尾以介壽之祝 <u>亦旣勞止</u> <u>茲惟艱哉</u> <u>視遠惟明</u> 聖德豈資於膚淺 有懷必達 微衷尙切於箴規</p>

<p>八月剝棗, 十月穫稻, 爲此春酒, 以介眉壽. 七月食瓜, 八月斷壺, 九月叔苴, 采荼薪樗, 食我農夫.</p> <p>九月築場圃, 十月納禾稼, 黍稷重穆, 禾麻菽麥. 嗟我農夫, 我稼既同, 上入執宮功,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p> <p>二之日鑿冰冲冲, 三之日納于凌陰, 四之日其蚤(早), 獻羔祭韭. 九月肅霜, 十月滌場, 朋酒斯饗, 曰殺羔羊, 躋彼公堂, 稱彼兕觥, 萬壽無疆.</p>	<p>字字丁寧 詎云堂陞之遠 粒粒辛苦 可想田野之勞</p> <p>②-3 矧念先后克勤 率致烝民乃粒 誕后稷有相之道 實苞實方 篤公劉于胥斯原 乃倉乃積 惟願我后 將多于前</p> <p>③ 伏念臣 雖忝周親 不如召爽 歎行役於零雨 幾吟燿耀之章 愧感應於反風 謾進鷓鴣之什 至於七鳴呼之陳戒 亦非多才藝而善鳴 欲效狗馬之誠 是臣職耳 敢將菟蕘之說 爲王誦之 卽康功田功 縱未贊保民之化 奏艱食鮮食 庶幾竭憂國之忱</p>
--	--

<표4> 강백년의 <擬周公進七月篇表>에 나타난 『詩經』과 『書經』의 전고 배치

위 표에서 『詩經』의 <七月>과 <擬周公進七月篇表>에서 중복된 용어를 **진한 색**으로 표시했다. 가을이 되면 “채마 밭에 타작마당을 닦고[築我場圃],⁵⁰⁾ “봄날 피꼬리가 울면 아름다운 광주리를 잡아야 하며[鳴鷓鴣於春日 執彼懿筐],⁵¹⁾ “공소에는 3년 묵은 돼지를 바치고[公則獻豨],⁵²⁾ 10월에는 “사적으로는 염소를 잡고[私焉殺羔],⁵³⁾

50) 『詩經』 <七月>에서 “구월에는 채마밭에다 타작마당을 닦고, 시월에는 온갖 곡식을 거둬들인다[九月築場圃, 十月納禾稼].”는 말이 나온다.

51) 『詩經』 <七月>에서 “봄에 햇벌이 비로소 따뜻해져, 피꼬리가 울거든, 아가씨는 아름다운 광주리를 잡고, 저 오솔길을 따라[春日載陽, 有鳴倉庚. 女執懿筐, 遵彼微行].”는 말이 나온다.

52) 『詩經』 <七月>에 나오는 말로, 원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에 애기풀이 껴

“새끼줄을 꼬아서 지붕을 이어야 하며[索綯乘屋],”⁵⁴⁾ 7월에 “아욱을 삶고[烹葵],” 8월에 “대추를 탄다[剝棗].”⁵⁵⁾ 강백년은 <擬周公進七月篇表>에서 <七月>의 내용을 다양한 계절에 맞게 발췌하여 내용을 구성했다. 그리하여 스스로 해당 전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나아가 주공이 <七月>을 성왕에게 올리는 상황을 더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었다.

위 표에서 밑줄 친 부분은 『詩經』의 <七月>을 제외하고, 주공과 성왕과 관련된 전고가 직접 인용된 부분이다. 進表의 주목적은 특별한 진언을 올리면서 그 의미를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⁵⁶⁾ 강백년은 <七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 앞뒤에 주공이 <七月>을 올린 궁극적인 목적, 즉 왕을 경계하고 왕의 덕성을 칭송하고자 한 의도를 살리고자 했다. 그리하여 『書經』에서 성왕과 주공과 관계된 고사를 삽입한 것이다.

허두에서 제4구인 “遺大投艱于身”은 “내가 하는 일은 하늘이 시키

든 5월에 말매미가 울며, 8월에 곡식을 수확하거나 시월에 떨어지니라. 一陽의 날에 담비사냥을 가서 저 여우와 살행이를 잡아 공자의 갓을 만들고, 二陽의 날에 모두 사냥을 가서 무공을 계속하여 어린 돼지는 자기가 갖고, 삼 년 묵은 돼지는 公所에 바치느니라[四月秀麥, 五月鳴蜩. 八月其穫, 十月隕墜, 一之日于貉, 取彼狐貉, 爲公子裘. 二之日其同, 載績武功, 言私其豸, 獻豸于公.]”

- 53) 『詩經』 <七月>에서 “시월에 마당을 깨끗이 쓸고, 두 동이 술로 연향을 베풀어, 새끼 양을 잡아 놓고, 저 공당으로 올라가서, 저 빨간 들어 축수 드리니, 만수무강하리리다[十月滌場, 朋酒斯饗. 日殺羔羊, 祭彼公堂. 稱彼兕觥, 萬壽無疆].”는 말이 나온다.
- 54) 『詩經』 <七月>에서 “낮에는 띠풀을 베어 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빨리 지붕을 이어야만, 내년에 곡식을 파종하리[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라는 말이 나온다.
- 55) 『詩經』 <七月>에서 “유월에는 아가리와 머루를 먹으며 칠월에는 아욱과 콩을 삶고 팔월에는 대추를 털며 시월에는 벼를 수확하여 춘주를 만들어서 미수를 돕느니라. 칠월에는 오이를 먹고 팔월에는 박을 타며 구월에는 깨를 털며 썩바귀를 뜯고 가족 나무를 베어서 우리 농부들을 먹이느니라[六月食鬱及藟, 七月烹葵及菘, 八月剝棗, 十月穫稻. 爲此春酒, 以介眉壽. 七月食瓜, 八月斷壺, 九月叔苴, 采荼薪樗. 食我農夫].”라는 말이 나온다.
- 56) 정경주, 앞의 논문, 2013, 104면.

신 것이다. 내 몸에 큰일을 물려주고 어려운 일을 던져 주시니, 나 충인은 스스로 구휼할 겨를이 없다[予造天役, 遺大投艱于朕身, 越予冲人, 不卬自恤].”라고 성왕이 직접 한 말이다.⁵⁷⁾ 같은 구에서 “無疆惟恤”이라고 한 것 또한, 소공이 성왕에게 “왕께서 천명을 받은 것이 끝없는 아름다움이지만 또한 끝없는 근심이니, 아,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惟王受命 無疆惟休 亦無疆惟恤 嗚呼曷其 奈何弗敬].”라고 경계시킨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⁵⁸⁾ 21의 제6구에서 “其敢荒寧”과 “不知小人之依”라고 한 것과, 결미 제24구에서 “卽康功田功”이라고 한 것은 주공이 성왕을 경계하여 한 말을 엮은 『書經』 <無逸>에 나오는 구절이다. 주공은 주나라에서 가까운 선대의 일을 들어 설명하기 위해 은나라 중종과 고종이 “감히 향락에 빠지거나 편안히 지내지 않았다[其敢荒寧]”고 찬양했고,⁵⁹⁾ 같은 세대에서는 문왕을 두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과 농사일에 나아가셨다[卽康功田功].”라고 했다.⁶⁰⁾

이처럼 진언하는 목적에 맞게 전고를 의도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왕을 경계하면서 백성들에게 농사일을 권면하는 내용을 동시에 담을 수 있었다.

57) 『書經』 <大誥>.

58) 『書經』 <召誥>.

59) 『書經』 <無逸>에서 주공은 은나라 中宗을 찬양하여 “엄숙하고 공손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천명을 스스로 따랐으며, 백성을 다스림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향락에 빠지거나 편안히 지내지 않았다[嚴恭寅畏 天命自度 治民祗懼 不敢荒寧].”라고 하였고, 高宗을 찬양하여 “감히 향락에 빠지거나 편안히 지내지 않았다[不敢荒寧].”라고 하였다.

60) 『書經』 <無逸>에 “문왕이 허름한 옷을 입고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길러 주는 일을 행하였다[文王 卑服 卽康功田功].”라는 말을 발췌한 것이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월과의 변천을 살펴보고, 강백년이 월과로 제출한 표 5편을 대상으로 17세기 중반 월과 창작의 일단면을 살펴보았다. 월과는 홍문관 및 예문관 관료나 문장이 뛰어난 신진관료를 대상으로 보던 정기 시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려시대 성종대부터 그 기원이 시작된다. 이후 조선 태종대부터 영조대까지 시험 대상과 방법이 바뀌어 왔지만, 당하관 이하의 신진관료 중 문장에 뛰어난 이를 선발하여 승진시키고, 권학하려는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월과는 인재를 발탁하고 교육하려는 두 가지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한국문집총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문신 제출로서 월과 작품이 개인 문집에 실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백년의 『雪峯遺稿』에서는 월과의 작품을 시기별, 문체별로 장원의 여부까지 기재하고 있어, 이를 통해 당대 월과의 시행 여부와 작품 경향의 일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월과로 제출한 작품을 시기별로 자세히 기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백년이 월과에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월과로 제출한 72편 중에서 36편은 장원을 차지했기에 당대 월과 작품의 모범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월과 문체로 많이 출제된 表를 살펴보았다. 강백년이 월과로 제출한 표는 총 5편이며, 이 중에서 장원을 차지한 작품은 3편이다. 5편 모두 의작이라는 사실, 또한 평측이나 장단구의 구성, 발어사의 사용 등은 일반 科表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꾀꼬리가 臣으로서 왕에게 사언하면서 이백의 시를 평하고, 본문의 내용과 연관된 이미지와 전고의 사용으로 글의 목적에 도달하려고 한 점은 강백년의 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강백년은 내용과 관련된 전고를 동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을 올리는 목적

에 맞게 전고를 배치함으로써 表의 본령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강백년이 월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추측된다.

본고에서는 강백년의 월과 표 작품의 우수성을 통해 조선 월과의 단면을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정보가 부기된 강백년의 월과 표 작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서 당대 우수한 월과 표는 무엇이었는지 추측해볼 수 있었다. 이로써 그동안 소홀했던 월과 작품 연구의 작은 단서를 마련하고자 했다. 앞으로 조선 월과의 전체적인 특성이나 시기별 월과 작품의 경향 등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체의 월과 작품을 살펴보고, 이를 또 科文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이 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姜栢年, 『雪峯遺稿』, 『한국문집총간』 103, 1993, 민족문화추진회, 213~342면.
- 姜頌期, 『月塘集』, 『한국문집총간』 86, 민족문화추진회, 367면.
- 朴泰輔, 『定齋後集』, 『한국문집총간』 168, 민족문화추진회, 319면.
- 蘇斗山, 『月洲集』, 『한국문집총간』 127, 민족문화추진회, 289면.
- 沈之源, 『晚沙稿』, 『한국문집총간』 속25, 민족문화추진회, 260면.
- 申混, 『初菴集』, 『한국문집총간』 속37, 민족문화추진회, 69면.
- 安獻徵, 『鷗浦集』, 『한국문집총간』 속28, 민족문화추진회, 526면.
- 李光胤, 『瀼西集』, 『한국문집총간』 속13, 민족문화추진회, 271면.
- 李民成, 『敬亭集』, 『한국문집총간』 76, 민족문화추진회, 374면.
- 鄭昌胄, 『晚洲集』, 『한국문집총간』 속30, 민족문화추진회, 274면.
- 鄭必達, 『八松集』, 『한국문집총간』 속32, 민족문화추진회, 211면.
- 강백년 저, 강원모 외 2인 역, 『국역 설봉유고 6』, 문진, 2021, 39~64면.
- 강석중, 「韓國 科賦의 展開 樣相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9, 1~145면.
- 김경, 「조선후기 향촌사회 科詩 창작 一考-『科賦抄』所在 <醉翁亭記>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2021, 149~180면.
- 김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2021, 161~191면.
- 김광년,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 『臨軒功令』 研究」,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129~159면.
- 김동석,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1~363면.
-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의 실제에 관한 일고찰-『東儂文』과 『儂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99~127면.
- 박선이, 「조선 후기 策題와 출제 경향에 관한 일고찰-肅宗~正祖 시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93, 한민족어문학회, 2021, 361~394면.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1~396면.
- 서범중, 「조선 초기 문신권학정책」, 『한국교육』 31, 한국교육개발원, 2004, 137~157면.
- 우지영, 「의작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韓信 소재 의작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341~362면.

- 윤선영, 「조선 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9, 1~344면.
-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5, 1~234면.
- 이상욱, 「조선후기 과표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대동한문학회지』 53, 대동한문학회, 2017, 159~193면.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2004, 한국학술정보, 1~374면.
- 이연진, 「조선시대 월과문신 관련 규정 변화 연구」, 『교육연구논총』 41,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211~232면.
-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회지』 39, 대동한문학회, 2013, 83~125면.
- 조좌호, 『한국 과거제도사 연구』, 범우사, 1996, 1~432면.
- 최광만, 「정조 대 유생 응제의 시행 양상과 정책 추이」, 『교육사학연구』 29, 한국교육사학회, 2019, 115~146면.
- 최광만, 「조선 후기 사학 과시 우등 출신의 관직 이력 분석」, 『한국교육사학』 41, 한국교육사학회, 2019, 77~106면.
- 허홍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1981, 1~621면.
-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 <http://db.history.go.kr/law/>(국사편찬위원회)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국사편찬위원회)
-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국사편찬위원회)
- 『한국문집총간』, <http://db.itkc.or.kr/>(한국고전번역원)

논문접수일: 2022.4.11. 심사완료일: 2022.4.20. 게재확정일: 2022.4.22.

Abstract

Aspect of the Wölgwa in Chosŏn through the Pyo of Sölbong Kangbaeknyŏn*

Lee, Mijin**

A Wölgwa is a regular exam for Office of Special Advisers and Office of Royal Decrees' officials, as well as new officials with excellent writing skills. In the case of Korea, its origins begin from the Korea Dynasty, the reign of King Söngjong. From the reign of King Taejong to Yöngjo in Chosŏn, the subject and method of Wölgwa changed, but the necessity was raised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and promoting those with outstanding sentences among the new officials. In other words, Wölgwa was implemented for two purposes: to recruit and educate talented people. Although Wölgwa was a representative test and educational system for civil officials in the Chosŏn, the research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Gwashi(科試) and Gwashi(課試).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and limitations of Wölgwa in the Chosŏn, and tries to identify aspect of the Wölgwa in the mid-17th century by looking at the Pyos that Kangbaeknyŏn submitted as Wölgwa.

It is not eas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Wölgwa works as it was rare to include examination prose in the collection of literature toward the late Chosŏn, and even if it was often not marked as '月課'. However, Kangbaeknyŏn's Sölbongyugo is suitable for examining whether Wölgwa were implemented and the trends of the works by writing the period, style, and grades as well. All five Pyos submitted b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 A02082732)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Kangbaeknyŏn as Wŏlgwa were written in ūjak, and the composition of level and deflected, long and short lines did not very differen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Gwapyo. However, in Kangbaeknyŏn's Pyos, the oriole is personified, and it gave thanks to the king, criticized Lee Baek's poems. Kangbaeknyŏn tried to reach the purpose of the writing by using images and an allusion(典故) related to the content of the text. In addition, Kangbaeknyŏn tried not to forget the essence of the Pyo by arranging an allus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Pyo.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the reason why Kangbaeknyŏn was able to achieve excellent grades in Wŏlgwa.

Keywords: Wŏlgwa, Gwashi(科試), Gwashi(課試), Examination Prose, Gwapyo, Kangbaeknyŏn, Gŭmŭigongja